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풀가동

임실군, 임대농기계 24종 735대 농기계 보유 ·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어느 때나 농기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휴일근무를 실시한다.

군은 4월부터 6월까지(상반기) 3개월간 4개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토요일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일요일에는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만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총 24종 73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도 최소화했다. 또한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작업능률향상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결에 크게 기여하면서 임실군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오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농기계가 대부분 비싸다 보니 형편상 살 수 없는 농가들이 많아 농사를 짓는 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농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국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장비 교체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한 작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염봉섭 남원시의원 "산악관광 메카로 자리매김 돼야"

남원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염봉섭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은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 산악관광이 남원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남원이 산악관광의 메카로 더욱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염 의원은 등산로 정비가 우선이라며, 구례지역은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반면 남원지역은 곳곳에 정비가 되지 않아 많은 등산객들로부터 비교를 당하고 질책을 받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지점인 도계나 시계 등 경계지역에 이정표나 남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정비해 초행길인 등산객들에게 등산로 찾기가 쉽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염 의원은 대강 고리봉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산림청,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및 산림과를 비롯한 남원시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염 의원은 남원은 바래봉 철쭉제와 봉화산 철쭉제 등 철쭉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바래봉 철쭉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복원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드림아카데미 첫출발 창업학교' 개강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는 청년창업자 등 드림아카데미 창업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8일 센터 교육장에서 청년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드림아카데미 첫출발 창업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첫출발 창업학교는 창업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맞춤형 멘토링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역량있는 창업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육성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함으로서, 창업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군의회 임시회 조례 통과 따라

순창군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관내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용한다.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향후 조례안을 공포하고 관련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이 증가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으로 마련됐다.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가의 60%안에서 최고 5천만원, 전세는 금액의 80%안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부해준다.

기금조성이 청년층 공무원들의 주거안정화를 통해 지역내 정주인구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원스톱 통합복지… 행복임실누리단 본격 활동

임실군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9년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는 9일 임실권역(임실읍 성수면)을 시작으로 강진권역과 오수권역, 관촌권역을 두루 돌며 복지서비스 활동을 펼친다.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 마을을 찾아가야한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가 방향제를 만들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군은 암실권역을 시작으로 18일에는 강진권역(청웅면 · 강진면 · 지사면)이다.

26일은 오수권역(오수면 · 삼계면 · 지사면)이다.

내달 3일에는 관촌권역(운암면 · 신평면 · 신덕면 · 관촌면)에서 '찾아가는 행복행복누리단'을 운영한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민선 7기 복지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지역민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말했다.

이어 "복지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국민이 디자인하는 민생규제혁신 공모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가 주관하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오는 5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 · 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이다.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한다.

우수과제 선정 기준은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등이며, 특히 올해는 대국민 공모뿐 아니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안과 지자체 발굴 등 모집 방식을 변화하여 숨어있는 규제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시상은 오는 10월 행정안전부가 우수제안을 선정해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3명) 각 30만원, 장려(15명) 각 10만원의 상금과 장관상을 수여하고, 응모는 시청 홈페이지(www.namw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야 한다.

이메일(pey4314@korea.kr) 또는 우편(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법무행정과 규제개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내부시설 정비 사업 실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은 회문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고객을 위해 산림문화휴양관 보완공사 등 내부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은 1993년도에 순창군 구림면에 개장된 이래 85만명 이상 찾은 순창군 명소로 숲속의 집 9객실, 산림문화휴양관 1동 8객실이 운영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관 보완 공사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예약제외 시설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상반기 중 ▲노후전력 개선 및 전력선 지중화 사업 ▲붕괴우려지 사면 보강 공사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 및 신설 ▲야영장 전기공급 ▲전객실 에어컨 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및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금번 내부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메아리

순창군 공무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순창군이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폭력예방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4대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왜곡된 성(性) 인식개선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한 김숙진 강사는 행복한 마음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1,500여회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날 강의는 사례를 들어가며 가정이나 직장내 무심코 했던 발언이나 행동들이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각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김 강사는 "직장내 구성원들이 성별 차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성 문화 정착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순창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운봉파출소 전화사기예방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소장 곽을용)는 9일 운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장단 회의에 참석, 농기계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와 빈집털이 절도예방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에 나선 곽을용 소장은 타 지역보다 이른 농번기가 다가오는 운봉지역 특색에 따라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 도로운행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안전띠 · 안전모 착용 생활화 등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대출 방법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사례설명, 농번기 빈집털이 예방법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발로 뛰는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곽을용 소장은 "지속적인 범죄예방 홍보로 주민들이 안전한 운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